

한강 거점 K-UAM 종합실증 본격화, 도심항공교통 시대 여는 한국형 버티포트 구축

- 6일 고양특례시와 업무협약(MOU) 체결... 올해 안으로 이착륙장 우선 구축
- '27년까지 여객터미널, 격납고 등 상용화형 인프라 단계적 착공

□ 한강 축을 따라 운항하는 도심항공교통(K-UAM) 실증하기 위한 2단계 도심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된다.

* K-UAM 1단계(개발지) 실증을 위해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(전남고흥) 내 실증인프라 (대지 20,131㎡/ 이착륙장 1곳, 계류장 2곳/ 격납고 등 건축 998㎡) 운영(23.8월~) 중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K-UAM 초기 상용화 준비의 일환으로 킨텍스 인근에 실증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3월 6일 고양특례시와 부지사용 등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한다.
- 이번 2단계 사업은 도심 환경에서의 운항 안전성과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로, 단순 이착륙장 조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시범 사업과 민간 상용화를 전제로 한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다.

□ 단순 버티포트를 넘어 '상용화형 도심항공 종합실증 거점'으로 조성

- 올해 안에 이착륙장을 우선 구축해 도심 운항안전성 검증에 착수하고, '27년까지 여객터미널, 격납고 등 상설 건축물을 포함한 종합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.

* (규모) 대지 15,085㎡/ 이착륙장 1곳, 계류장 2곳/ 여객터미널, 격납고 등 건축 1,836㎡

- 이번 거점은 단순 여객터미널 조성이 아니라, K-UAM 상용화를 준비하는 도심항공 종합실증 거점으로 구축된다. 여객처리와 지상조업 체계, 기체 정비(MRO) 환경, 운항 통제 및 시설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실제 사용 운항과 유사한 조건에서 운영 절차와 안전기준을 검증한다는 구상이다.

< 킨텍스 K-UAM 실증 버티포트 조감도(안) >



□ ‘버티포트 설계기준’ 최초 적용

- 킨텍스 실증 거점은 ‘버티포트 설계기준(’26.3월 제정 예정)’을 반영해 구축되는 최초 사례다.
- 이착륙장과 터미널 등 물리적 시설뿐 아니라, 실제 상용 운항 환경 구현을 위한 시스템·운영 기준까지 종합 적용해 한국형 버티포트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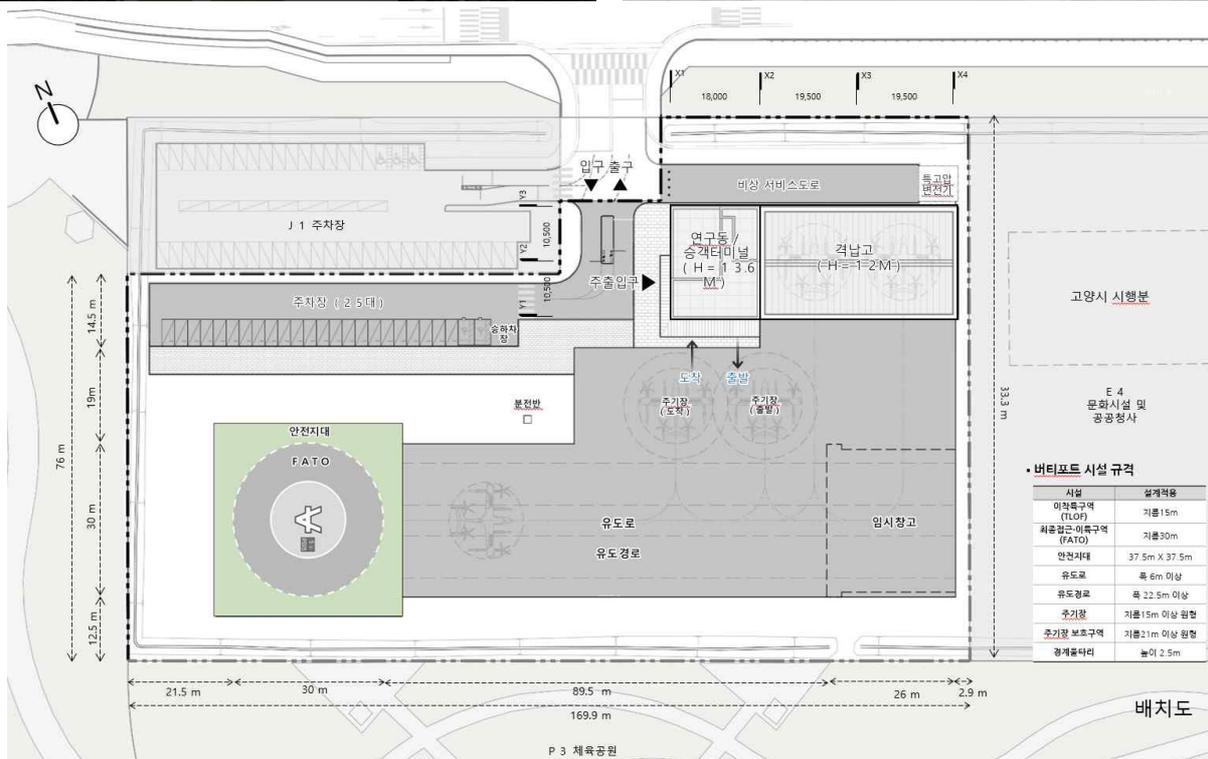
□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“이번 2단계 인프라는 K-UAM이 실증을 넘어 시범사업과 민간 상용화로 나아가는 핵심기반이 될 것”이라며, “단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심 상용화 환경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도심항공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기훈 (044-201-4197)
		담당자	사무관 류윤하 (044-201-4306)
		담당자	주무관 박세희 (044-201-4281)

□ 버티포트 시설규모

구 분	내 역			비고
대지위치	일산서구 대화동 2707번지, 킨텍스 2단계 계획 H1 지역			
대지면적	15,085㎡			
	전 체	여객·연구동	격납고동	
연면적	1,836㎡	966㎡	870㎡	
층 수	지상3층	지상3층	지상1층	
구 조	철근콘크리트조 , 철골조			

□ 버티포트 조감도



□ 추진배경

- UAM은 기존 항공과 달리 저고도에서, 수직 이·착륙이 가능한 전기항공기를 활용하여 단거리·고빈도 운항을 목표로 함에 따라,
 - 기체뿐 아니라 도심 내 운항, 통신·항법 신호 혼잡, 버티포트 연계 등 기존 항공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운용환경 전반의 통합적 검증 필요

☞ K-UAM 그랜드챌린지를 통해 실제 환경에서 운항 안전성, 운용 연계성 등을 검증하고 제도 정비와 상용화 기반 마련

□ 주요내용

- (추진체계) UAM이 신개념 비행체인 점 등을 감안하여, 비교적 인구밀도가 낮은 개활지에서 시작하여, 도심지로 단계별 시행



- (점검항목) UAM 기체(eVTOL) 안전성 시험과 소음을 측정하고, 운항-교통관리-버티포트간의 통합 운용성* 등을 검증

* 정상/비정상상황(배터리 화재 등)에 대한 실증사업자의 대응 방식 등 점검

- (결과활용) UAM 운항환경을 구축·운영하여 관련 데이터를 수집·분석, 안전성을 검증하고 다양한 제도·기준 마련에 활용

* UAM 운항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·통신 장비 등(운항-교통관리-버티포트)

- 민간 기술개발을 지원하고, 민-관이 함께하는 실증을 통해 산업 생태계 활력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 다층적 성과 창출